

발행처 본재단 이사장

한국의사회재단에 있어서의 2003년은 우리재단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기금모집을 시작하는 4년째가 되며 여생단체들의 성평등사회 만들기라 여생의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도 3년째가 되는 해이다.

우리재단의 청사진인 기부문화에 여생들을 위한 재단의 관심을 인구에 내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다. 특히 2003년은 우리나라 경제의 경기침체로 시민들의
소비심리 위축으로 기금모집의 성과는 부진했다. 그러나 본연의 재단의 지원(연)의 규모
가 2002년 3억5천7백58만원에서 2003년에는 6억1천5백78만8천300원으로
가이 바뀌었지만 우리 주위에 이웃을 직접 돕고자 하는 자립기탁금을 전제로 따뜻한
소금이 주어져 지는데서 기뻐했다.

우리재단에서 최근 기금모집이 감소 추세에 있는 은행의 금리에만 의존하여
하는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의 수익을 높이고 있는 기부문화의 진흥에서
있는 달리 기금추진의 의미가 크지 않다. 본재단이 금년도에 들어오면서 기금모집
위주의 모금활동에서 시민의 자발적 모금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재단의 기본목적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서였다. 단체활동 자체가 우선 업무이치 때문이다. 여생재단
이 추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관계를 맺음으로써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부자들의 연결하는 고리의 역할에 있다. 2003년이 바로 여생
재단이 이 일을 시작하는 해이다.

여생재단은 영구적인 여생에서 현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생단체들의
기부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일하는 재단원의 기회를 주는 <젊은여생 그리고 간
후후>이라는 기획사업을 통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04년에는 이러한
를 모금사업 공공재단의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금이 마련된 것이 하나의 사례가
된다. 여생재단의 소위 여생 여생을 지원하고, 특히 2003년 2월 10일이래가 될
로 하는 여생인력양성, 국제화시대에 부합하는 국제리더십양성, 등의 재단이
지향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뜻있는 동지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사회재단의 2003년을 되돌아보면 우선 이재단의 기부문화 확산으로
여생단체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을 발휘할 수 있는 화기회생적인 실무진의
인력이가 기동되기 위대한 것은 재단의 큰 힘이다. 그리고 이들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모금활동 그리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대리활동
을 통해 내외의 공동의 정책에도 물론 여생재단을 사회에 홍보할 수 있도록
것은 2003년의 큰 성과이다.

특히 2003년 5월 제1회 연례회의 <100인 기부캠페인>의 성리는 모금으로
도움이 되었다는 2보라더 큰 수확은 자신이 기부한 모금에 대한 다른 사람에
기부할 것을 권하고 성명해 내는 1500여명의 노블레스 오블리제 등을 위해
내는데서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단계를 위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호에 평북중에서 시작해서 2년째 있는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문화나눔의
잔치인 <비노노 합창단>이 조화 공연으로 개최한 것이나 기부받은 향토음식을 위한
민간공연대란과 공연활동단체의 합동행사인 <기빙 액트>에서의 합주공연 참여
때는 문화북권기금의 합주공연 운영을 후원하는 <동행북권백> 제3회 리리온
전 주최합주활동 그리고 리리온극단 여성합주단과 독려하기 위한 합동연극등
은 2003년을 기해 여성대란의 활동의 폭을 넓게 하고 있는 혼란이다.

북재난이 언제든 할라 4주년을 기념하는 리리온 여성재난의 활동을
문화활동(Humid Rainy) 뿐만이 아닌 우정카우치(Friends Raising) 등으로
2004년 5월을 전까지 할라 하는 것은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기, 리리온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동요로써는 될수없이 내리날 것을 줄임하고 안을 리리온
문화활동이 내리날 생각한다. 우정카우치 리리온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기도한다.